

# 신보가 95% 빛 보증...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최대)

## 소상공인 2단계 긴급대출

금융위, '특수목적기구 설립' 추진 18일부터 4대 시중은행 등서 신청 기간산업 안정자금 준비상황 점검

정부가 저신용층 소상공인도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액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토록 했다. 위축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제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안정화 방안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손부위원장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은 지금부터"라면서 "금융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으로 대응하고 발표된 대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8일부터 접수하는 2단계 긴급대출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특수·국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되며, 금리는 중(4~6등급)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연 3

~4%다. 금융위는 저신용층 소상공인이 2단계 긴급대출이 거절되지 않도록 대출액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1000만원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95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라도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도 운영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간산업 안정자금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항공운송업,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기간산업 안정자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시장에서 상

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은 산업·기업은행의 기업어음(CP)매입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추진으로 시장경색이 완화되고 있다. 우량 회사채(AA이상) 발행은 4월 기준 4조 8000억원으로 지난 3월(1조80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다. A등급 회사채 순발행액은 3월말 2948억원에서 4월말 마이너스 76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자금시장을 모니터링해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KB국민銀, 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F 약정 체결

국내 은행으로는 참여 '유일'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활발 에너지자원 확보 금융지원 역할

KB국민은행은 2억40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금융(PF) 선순위대출에 대한 금융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프로젝트 추진이 위축, 중단되는 환경 속에서도 우량한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외 인프라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667km의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Coastal Gaslink Pipeline)을 건설하는 80억 캐나다달

러 규모 사업에 대한 선순위대출이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등 캐나다 5대 은행을 비롯한 총 27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 은행으로는 유일하게 KB국민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Coastal Gaslink Pipeline)은 캐나다 서부 지역의 가스전과 LNG 액화터미널을 연결하는 필수시설이며, 저렴한 캐나다산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핵심기능을 담당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셸(Shell)과 한국가스공사(KoGas),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PetroChina), 말레이시아 석유천연가스공사(Petronas), 일본 미츠비시(Mitsubishi) 상사와 장기이용계약이 체결돼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2022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한국가스공사의 국가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 ▲캐나다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가치 ▲LNG분야 선도기업들과의 장기이용계약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구조 등을 고려해 이번 금융지원에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말에도 UAE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에퀴티 브릿지 론(Equity Bridge Loan) 금융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프로젝트 물량이 급감한 와중에 글로벌 랜드마크 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향후에도 우량 인프라 자산 중심의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IB부문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왼쪽부터)김학수 금융결제원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김윤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 업계 최초 금융데이터 거래

데이터기반 자문·판매 서비스업 2500만명 거래고객 정보 활용

신한은행은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를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의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구축했고, 이미 30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150건 이상의 데이터 상품이 출범과 동시에 판매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에 맞춰 2500만명의 거래고객과 월 3억건 이상의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지

역단위의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를 개발했다. 데이터는 고객군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고 금융관점에서 지역별, 상권별, 고객군별 세분화 및 비교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제휴사들과 데이터 협업 및 결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유통 데이터 개발과 외부 자문을 통해 데이터 상품화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신한은행이 보유한 금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금융데이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금융 임직원 봉사단, 농번기 일손 지원

김광수 회장 "농촌지원 최선 다할 것"

NH농협금융지주는 12일 김광수 회장 및 임직원 봉사단 30여명이 인천 남동구 소재 배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직접 농가를 찾아 배 열매 수확(적과) 등 활동을 통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눴다.

김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농



12일 인천 남동구 배 과수농가에서 진행된 'NH농협금융지주 농촌일손돕기'에서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왼쪽 첫번째) 및 임직원들이 배 열매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촌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농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은행, 생명보험, 손

해보험, 증권 등 전자회사들과 함께 농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촌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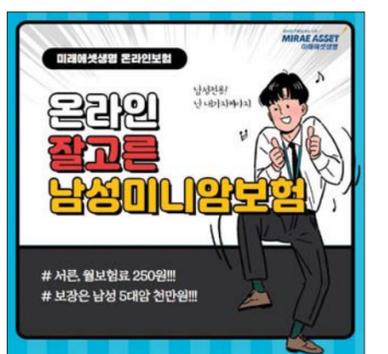
/안상미 기자

## 미래에셋생명 잘 고른 암보험 하나, 열 안 부럽다

미래에셋생명은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 250원으로 남성 5대암을 1000만원 보장하는 '온라인 잘 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 일보험을 기준으로 국내 최저 수준이다.

온라인 잘 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은 발병률이 높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급부만 추려 저렴한 보험료로 가성비 높은 남성특화 상품이다.

우선 남성암 발병률 1~5위인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가입 연



령은 20세부터 50세까지다.

/김희주 기자 hj89@